

## 인간 중심의 휴게소 Service Area Oriented to Mankind

이관석 /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Lee Kwan-Seok

### ‘티’를 벗는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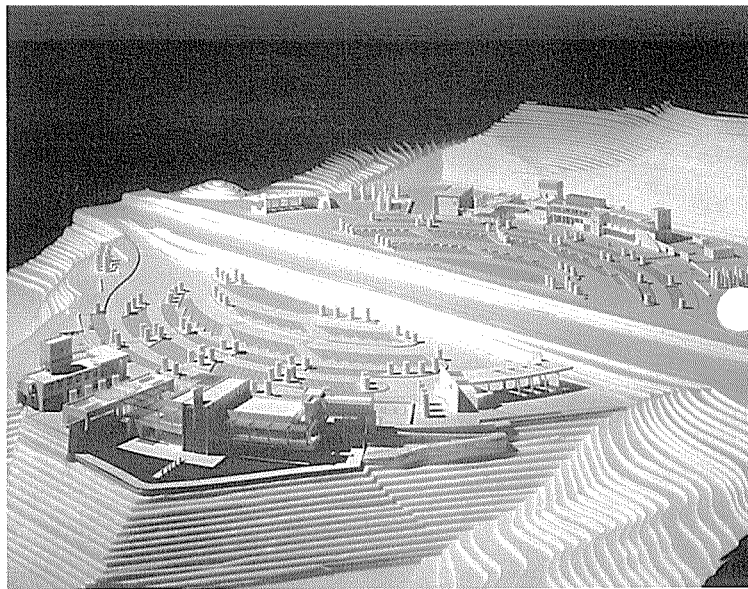
우리는 건축물에서 흔히 어떤 ‘티’를 발견하곤 한다. 이 말은 동일한 유형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습관적인 양태가 포착될 때 붙이는 접미어이다. 이 ‘티’는 ‘끼’를 상실한 무감(無感)한 이들이 배설해 놓은 사회적 퇴적물이다. 개성을 보편화시켜야 하는 건축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순간 느슨해진 팔약근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보편화시킬 개성과 아울러 그 개성을 보편화시킬 능력을 겸하지 못하면 이 ‘티’는 평생 벗기 어려운 굴레가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개발독재시대에 시작되어 이후 소위 민주화되었다는 근래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습과 쓰임에서 건축의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이 ‘티’를 우리에게 집요하게 강요하여왔다. 넓은 주차장을 앞둔 긴 건물이되 건축이기를 포기한, 휴식이 아닌 짜증을 안겨주는 곳, 공휴일이나 명절이면 이곳에서 인간은 숫제 노략의 대상이 된다. 징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워낙 저렴

### Building Outside of The Look

We often come across buildings with a certain ‘look,’ which is a result from the habitual repetition of fixed forms. They are social accumulation of senseless building devoid of design instincts, works of architects who have failed to generalize their personal preferences. The absence of the ability to render individual tastes universal, along with the lack of individual taste in the first place, build up the trap of ‘the look’ that is seldom overcome.

The service area of highways is a typical case in this respect. From the age of dogmatic economic developments to the present era of the so-called democracy, they have almost never failed to provide us with that tiresome look. Facing a large parking lot but denying itself as a work of architecture, what they actually ‘serve’ is discomfort and annoyance. Users, already grateful for the low highway toll, are content with whatever space is given, never quite conscious of their right as customers.



인삼랜드(상/하)휴게소 모델

한 까닭인지 쉼터의 권리를 상상도 못하는 주눅든 이용자들은 비집고 들어설 틈만 있어도 요행으로 여겨야 한다. 참 오래도 이 ‘티’에 길들여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네는 마음이 여리고 눈시울에 열(熱)이 많은 민족인지라 이 끈질긴 ‘티’가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기꺼이 감동될 준비가 되어 있다. 건축가 이충기가 설계한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에는 ‘고객 최우선주의’의 정신이 엿보이는 배치와 평면, 단면과 형상에서 지금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녔던 언짢은 자태를 씻어주는 덕목들이 여럿 보여 마침내 시대가 바뀌어 감을 실감하게 된다.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만으로도 흐뭇했던 서민들의 소박한 기쁨이 이 휴게소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 존중 요소들로 인해 좀 더 환한 미소로 커질 소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 인간 중심의 여유

We have been under this look for so long that a small instance of change will move us. That wish is fulfilled in Insamland Service Area, the recent work by architect Lee Chung-kee, which manifests the spirit of best service in its all aspects - from layout to plan, and section to form. The days have indeed changed: those who were glad to see clean rest rooms within the frame of past service areas will be further excited by the building’s respect for human values.

### Allowing for Human Values

Apart from the commercial facilities of restaurants, cafeterias and convenient stores, the service area has a large portion of public spaces: even the most careless eye can at once notice the bulk of spacious rest rooms, atrium space with escalator hall, galleries and decks, and dormitory for workers. With a limited number of present users, it almost makes us feel guilty to be provided with such luxurious amount of space. On both sides of the highway, a three-level-high escalator hall

금산인삼랜드 휴게소는 식당이나 카페테리아, 매장, 편의점 같은 수익성 있는 장소와 비교해 전설까지 갓춘 넓은 화장실, 아트리움 공간이 된 독립적인 에스컬레이터 홀, 상행선의 회랑과 하행선의 데크, 직원숙소건물 등이 일반인들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율로 넓은 면적을 차지한 특징을 보인다. 아직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 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보이는 서비스하는 면적이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평면상의 넉넉함과 아울러 체적상의 아낌없는 투자 또한 이채롭다. 상·하행선 휴게소가 모두 가지고 있는, 휴게소 본동 위로 솟은 세 개 층 높이의 에스컬레이터 홀은 절전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 세워놓아야 하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제성에 대한 염려를 증폭시킬 정도이다. 향후 진주까지의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얼마나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것으로 계산한 지는 모르지만, 진정 건축주인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를 왕으로 알고 환대하기를 원했다면 그 동안 당한 것을 감안하고 사용빈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정도 낭비(?)에 일단 눈감아주기로 한다. 장기적으로 이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났을 경우 이러한 여분의 공간이 임의적으로 점유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변용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러한 공간적 배려와 함께 설계의 정도(精度)는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에서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풍겨나는 값싼 상업적 냄새를 지워준다. 특히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된 까닭에 수준차는 있지만 건축적으로 동일하게 계획된, 고급 호텔의 화장실을 연상시키는 상·하행선 휴게소 화장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벼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안으로 들어서면 눈앞에 보이는 창을

hovers over the main building - one is curious of their economic feasibility, but it is presumed that the growth of users following the future construction of highway to Jinju would have convinced the inspired client Korea Highway Corporation - to invest so much on this project. (It will indeed be interesting to keep track of how its free spaces are used when the rate of the facility's use is increased.)

Along this consideration for space, what is astonishing about this service area is its careful attention to architectural designs that successfully discards the commercialist color of others. The rest rooms on both side of the highway - built by respective interior companies but equal in design - even give out the impression of luxurious hotels - the garden landscape one comes across outside the window as he/she enters the rest room, the handsome tree on its center, refined washing stands, toilets designed specifically for children, and natural light coming from the skylights all help to do its users proud as rightful customers.

통해 펼쳐지는 정원, 중앙에 위치한 고급 수목의 조경, 세련된 세면대 처리, 한쪽 구석에 자리잡은 양증맞은 크기의 아기대·소변기, 천창을 통해 충분히 유입되는 자연빛 등은 고속도로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유쾌한 기분이 들게 한다.

### 선형건물에서의 투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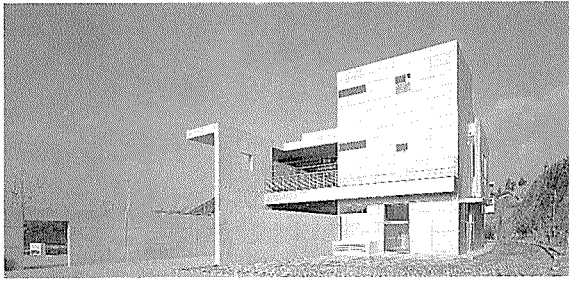
하행선 휴게소의 단면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끈질기게 지닌 타를 떨쳐내는데 크게 기여한다. 여기서 여행자는 실내로 들어선 후에야 커피숍과 식당이 주차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주차장 레벨보다 낮은 아래층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휴게소 후면의 경사지를 감안하여 단면상 주진입 레벨의 아래층에 주요 수익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이러한 단면계획은 그러나 상식을 뒤엎은, 고객과 환경 위주의 발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에서 볼 때 수익시설들을 지상 1,2층에 배치하여 쉽게 시선을 끌면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안이함을 버리고, 주차장에서 보는 건물의 높이를 낮춰 방문객에게 친근감을 주는 인간적 스케일을 제공하면서 건물이라는 인위적 산물이 자연 속에서 지녀야 할 겸손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단면상의 배려는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공히 나타나는 투과성이 강한 선형건물(linear building)의 특징과 어울린다.

한쪽 방향으로 긴 선형건물은 이전에는 하나였던 외부공간을 불가피하게 두 공간으로 나누게 된다. 이때 나타나기 쉬운 장벽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물에 의해 분리된 두 외부공간간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투과성 모색이다. 배면이 넓게 트여 좋은 전경을 갖고 있는 하행

### Transparency of Linear Form

The section of Insamland Service Area's western portion characterizes what is so fresh about this work - located on level below the parking spaces, coffee shops and restaurants are only to be perceived after entering the building. Whereas all other service areas choose to place commercial facilities where it is most visually approachable, this one, considering the presence of slanted ground behind it, willingly lowers its volume in order to accommodate a more human scale. The artificial creation of architecture takes a humble stance toward nature.

This feature also becomes the transparency of the buildings on both side of the road, which basically take a linear form. With a strong sense of orientation, this form inevitably divides its surrounding outdoor space into two. But this wall-like image, discouraging the interaction between spaces on either side, is weakened by making the volume transparent, especially in the western side which commands a fine view at its rear.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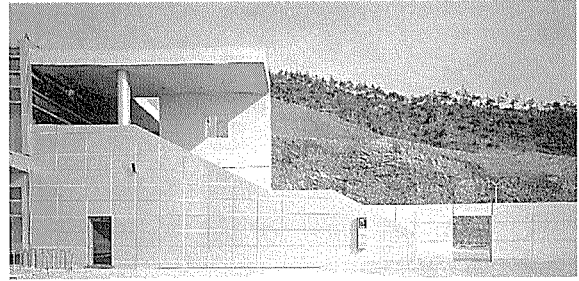


배면에서 바라본 인삼랜드(상) 휴게소 전경

선 휴게소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를 위해 확장실로 향하는 외부동선과 내부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전체건물의 축성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건물 너머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휴게소에 닿을 때 대부분의 방문객이 먼저 찾는 확장실로의 진입을 돕는 철골 캐노피는 이러한 고착된 건물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공간적·체험적 관통을 강조한다. 이 확장실 앞의 외부공간은 사실상 전체 구성에서 공간적 핵심으로서 세심하게 처리되었다. 시원하게 개방된 전경의 프레임과 전망대 역할을 하는 이곳은 선(線)의 특성이 강조된 철구조물, 면(面)의 특성이 강조된 깨끗하게 시공된 노출콘크리트와 나무바닥, 볼륨의 특성이 강조된 휴게동의 알루미늄 쉬트 패널 등 서로 다른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주차장에서 건물을 처음 봤을 때 경험한 선과 면, 볼륨의 유기적인 조합과 더불어 이 휴게소가 세심하게 계획되었음을 재삼 확인시켜준다. 상·하층 배면에 설치된, 전망을 즐기며

outdoor circulation towards the rest room - whose steel structured canopy also runs against the main orientation of the building - along with the indoor path towards the lower level via the stairway and escalator, perpendicularly cuts through the linear massing and opens up to the fine landscape beyond it. The outdoor space in front of the rest room forms the center of the overall spatial composition, as its function of watchtower of the wide view on nature is subtly planned and executed. It also features a magnificent play among different formal elements and materials: Steel structure elements as line, exposed concrete and wood flooring as plane, and the aluminum sheet-covered main building as volume. (This complex composition actually replicates the building's first impressive image seen from a distance at the parking lot.) The decks on the rear side of the building on both levels provide space of rest and observation, and await further active use.

The eastern part of the service area, with its facade level carefully arranged, is a more horizontal and continuous presence than its western counterpart. The



인삼랜드(상) 휴게소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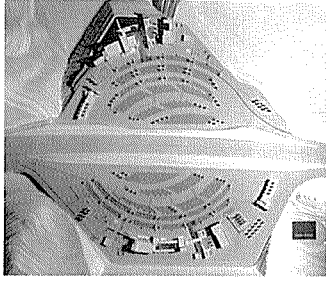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데크 또한 건물의 방향성과 직교된 시선의 확장을 제공하면서 향후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비하고 있다.

상행선 휴게소는 전면의 높이가 정돈되어 하행선 휴게소에 비해 수평성과 연속성이 강하지만 하행선의 체험적 투과성을 통한 공간적 소통보다는 공간적 깊이감을 활용해 선형건물의 차단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전면 배치된 회랑이나 긴 처마 등을 이용해 입면에 그림자를 드리움으로써 이중 파사드(double facade)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는 건물의 후면에 급경사로 깎은 절토 경사면이 인접해 있어 원경으로의 조망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확장실과 엘리베이터 홀 사이의 외부공간이 내부보다 더 여유 있는 휴식공간으로 다가온다. 회랑을 받치는 원기둥 열과 식당(2층)과 매장(1층)의 유리외벽에서 유리면 이상으로 돌출된 수직 프레임은 이 휴게소의 수평성에 반하면서도 그 특성을 돋보이게 한다.

debilitating of its linear form, however, utilizes the spatial depth - a method quite different from the western building's interpenetrating transparency. Since it sits in front of a slanted hill with no room for an open view, the effect of double facade is achieved by the use of gallery and projected ceiling on its front. The colonnade supporting the gallery, and the vertical frame extended from the curtain wall of the restaurant (on the second floor) and convenient store (on the first), seem to be against the horizontality of the building but nevertheless emphasizes its formal characteristic.

#### Conflict Between Architecture and Interior

As noted before, the formal features of Insamland Service Area are responsible for its overall quality, which means that architectural design has played its due role in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n terms of interior design, however, it does not always seem to be in accordance with its design intentions. Independent from the curtain wall of the escalator hall,



인삼랜드(상/하) 휴게소 모델

### 건축과 인테리어의 마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에는 상당 수준의 조형성이 투여되었다. 즉, 건축적으로 되어야 할 것들이 되어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건축과 인테리어의 궁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상행선 휴게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난다. 에스컬레이터 홀의 유리벽과 떨어져 독자성을 지키며 수평적 운동감을 일으키는 외부 회랑이 2층 식당의 내부 천장과 연결되는 방식을 예로 들어보자. 이 회랑의 덮인 상부는 식당에서는 열린 천창으로 연속되어 내·외부간의 연계성과 회랑의 수평적 연속성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적 조치가 부적합한 인테리어에 의해 가치가 반감되었다. 건축 자체의 정교함을 감안해 인테리어가 절제되어야 했는데 함께 나섬으로써 혼란스럽게 된 것이다. 조잡하게까지 보이는 내부 마감 처리는 건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한다. 건축가가 배제된 인테리어가 언제나 사라질 수 있을까.

the horizontal outdoor gallery, with the object of preserv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is supposed to have its ceiling continuous from that of the second floor's skylight. But this architectural intention is obstructed by inadequate interior planning, whose extravagance hardly helps to emphasize the simple spatial effect. Looking at the rough finishes of the interior, one wonders when the interior works will do justice to the architect's original plans.

There is also an instance of overplaying on the architect's side: where his obsession for sunlight has taken the work to extremes in the round skylight on the projected roof of the galleries. The space underneath will no doubt be brighter, but the abundance of light will ultimately diminish its meanings and effects. On the western building, the skylight with the height of three floors in the front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without the three circular skylights on the escalator hall. Transparency can only be so effective with the proper amount of opaqueness set against it.

좌우에 빛이 있는 회랑의 지붕이나 돌출된 처마에 원형 천창을 설치한 것과 같이 빛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 건축 쪽에서도 과한 면이 없지는 않다. 이와 같은 조처로 밀면이 덜 어둡게 보이기is 하겠지만 빛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킬 위험이 있다. 하행선 휴게소 에스컬레이터 홀의 천장에 있는 세 개의 원형 천창도 없었다면 전면에 있는 삼 개 층 높이의 전창이 주는 수직적 투명성에 대응하는 수평적 불투명성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투명성이 적절히 보호될 때 투명성이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과함은 늘 부족함보다 못하다.

### 휴게소 문화 발전의 표본이 되기를...

금산인삼랜드 휴게소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휴게소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공헌했음은 사실이다. 기존 유형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상당한 용기와 실력이 필요한 법이다. 신선함으로 다가오는 이 휴게소는 고객 위주의 과감한 계획안을 채택함으로써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라는 휴게소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금산인삼랜드 휴게소를 본 후 후회 하는 기대를 갖고 현재 건설 중인 다른 고속도로의 일부 완공된 구간에 신축된 휴게소를 일부러 들리면서 느꼈던 낭패와 실망감은 이 휴게소에 서의 제안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하였다. ▣

### A Hopeful Model for the Culture of Future Service Areas

Albeit with these minor defects, the Insamland Service Area of Kumsan has arguably set a new standard for these facilities. It is easy to find fault with the past models, but it takes courage and vision to provide a feasible alternative. After seeing this accomplished work, I have visited some other service areas under construction with the hope of finding some more instances of innovation. Their complete lack of such has further insured me how far architect Lee's fresh, new suggestion has taken us.